

③를 加하여 都台 다섯곳에 「트렌치」를 넣었다. 이 結果 東쪽의 限界가 뚜렷해졌고 南쪽도 S「트렌치」의 南端에서 거의 判明되었으나 西쪽은 繼續 깊어지며 連續되고 北쪽은 主要部가 道路工事 때문에 完全히 缺失되었음이 밝혀졌으며 또 東·南은 現地表에서 三〇cm 地下부터 貝殼이 始作되는데 西·北쪽으로 가면서 점차 깊어져서 S「트렌치」의 西北端에서는 地下一·四m에서 비로서 貝層을 볼 수 있었다.

出土된 諸遺物을 살펴보면 貝殼에서 굴껍질과 소라껍질이 제일 많고 그 밖에 우렁, 골뱅이, 꼬막, 조개 등 十餘種이었으며 骨片은 鹿角을 비롯하여 齒牙骨과 많은 獸骨이 採集되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이 方向專

斷崖地에서는 地表에서 二m 깊이에 露出되어 있어 이 貝塚의 東쪽 限界點과 그리고 西쪽으로 갈수록 깊고 두껍게 묻혀 있는 傾斜진 貝層임을 直感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路邊斷層에 平行하게 「트렌치」를 넣고 間地一·五m 幅을 通路로 設하여 A·B를 東쪽에 C·D를 西쪽 「트렌치」로 하여 同時에 (長五m 幅二m) 發掘하였으며 마지막에는 C·D의 西쪽에 가로(橫)로 S「트렌치」

門家の 再審에 依하여 分類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土器는 거의 有紋土器로 無文土器는 南쪽 限界點인 D「트렌치」의 西·南과 S「트렌치」의 南端 附近은 地下에서 出土되었다. 有紋土器는 魚骨紋, 斜格紋等 三十餘種의 施紋을 蒐集하였으며 特別 穿孔이 있는 土器가 多量으로 出土되었음은 注目할 만하다. 發掘된 土器片中에는 口緣部片이 많고 卵形底部와 尖底形도 數點 採集되었다. 骨器로는 骨針과 骨鈎가 出土되었으며 貝器는 主로 製身貝로서 貝殼을 도려내어 잘 갈아 판치형으로 만든 것이 數點 發掘되었는데 그 手法이 注目된다. 石器는 圓孔이 있는 鍾이나 왔으나 利器는 全無하였다. 이 一帶의 丘陵은 現在 耕作地인데 周圍 몇 곳에도 貝殼이 들어나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確實 調査되지 않은 貝塚가 많으므로 앞으로 年次的인 發掘調査가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調査에서 物心兩面으로 많은 後援을 주신 金相朝郡守와 李成甲面長 그리고 現地까지 來訪하여 遺物整理와 包裝까지에 協助해주신 同人 李龜烈 李宗碩 文甲洙 李浩官 金和英 諸氏와 海軍士官學校의 禹炳熙教授께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註 ①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國立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第二冊 金元龍編) 二四·三〇頁 三浦와 泗川郡 項에 보면 貝塚는 一個 處 뿐이다.

② 六月中旬 智異山地區調査時 歸路에 同人 文甲洙 鄭明鎬 兩氏와 함께 現地를 初踏하여 確認 調査한 바 있다.

③, 特別 (Special) 「트렌치」란 뜻에서 全文에 S「트렌치」라 하였다.

龍門寺一浮屠의 舍利裝置

文 明 大

龍門山이란 이름이 輿地勝覽에 「龍門寺在彌智山山之稱龍門以寺」라 보 이는 名刹이었다. 그런만치 銅鍾, 佛像의 施納에서 부터 重修에 이르기

까지 王室의 庇護를 받았던 願利이기도 하다. ①

현재부터 이 寺刹이 있어 왔는지는 龍門寺重記에서조차 「龍門山爲畿甸名利久矣」^②라 있을 뿐으로 확실치 않을 수 없으니 李太祖三年(一三九五)에 된 正智國師碑에서 보면 高麗中期頃에는 벌써 敍建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지금은 六·一五動亂 등을 겪으면서 完全히 불타버린 자리에 法堂, 僚舍等二, 三棟의 건물만이 新築되었을 뿐 深山勝境에 취한 관람객들의 禪소에 비하면 한층 적막하기만 하며 다만多數의 주춧돌 正智國師碑를 비롯한 一〇餘基의 浮屠群들이 옛날의 번성을 傳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이 正智國師碑와 六基의 浮屠는 寺東隅一角에 자리잡고 있어 특히 注目을 끌어들었는데 이것들은 原來 現寺에서 東으로 낮은 등성이를 넘어 二〇〇m쯤 떨어진 약간 비탈진 臺地에安置되어 있었던 것을 境內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浮屠가 있었던 이 臺地에는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그 흔적이 잘 남아 있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築臺를 쌓아 평탄한 臺地를 마련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鍾形浮屠一基가 身과 臺가 遊離된체로 수풀에 묻혀 있는 것을發見할 수 있다. 이 浮屠는 移安된 龍門寺浮屠中 가장 單調로운 鍾形으로 移安하는데 있어서 조차 빠졌던 것이지만 三年前에 이 浮屠에서 舍利一刮遺物이 수습되어 관심을 모우게 했으며 金年 二月에 이 遺物이 龍門寺住持에 依하여 東大에 寄託되어 음에 따라 지난 七月 九일에 現場調査를 한 바 舍利裝置 또한 古式을 마르고 있는 注目할만한 資料였다. 三年前 李鍾悟氏等 洞人數名이 臺石을 家材로 쓰기 위하여 身部를 굴러 떨어져 뜨리고 곡평이를 臺石 밑으로 집어넣어 들어 올리려다 곡평이에 외불이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臺石 밑을 파본 결과 舍利遺物이 나왔으므로 遺物만 짚에 施納하고 浮屠는 그대로 放置하였다 한다. 그래서 아직 도 당시 그대로 高一九四cm 下徑五六cm의 鍾形身部는 臺石이 놓여 있는 原位置에서 五〇m쯤 아래에 굴러 있고 方形의 板石을 잘 다듬은 一邊 九四—一〇四cm 厚 三—cm의 臺石은 제자리에 세워 약간 들춰진채로 있는데 지금은 수풀이 덮여 主持僧의 案內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舍利를 수습하던 당시 그대로의 狀態가 교란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이것은 오히려 舍利裝置를 調査하는데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현재 方形으로 다듬은 臺石의 南面下部에서 臺石 밑 中心部까지 구멍이 파져 있는데 銅舍利盒을 끼집어낸 흔적이다. 銅舍利盒은 灰에 密封된채로 臺石 밑 바로 한가운데에 上部가 臺石과 접하면서 흠에 묻혀 있었다 한다. 이와같이 浮屠臺石 밑에 舍利를 奉安하는 方式은 옛부터 盛했으리라 推定되고 있으나 調査된 것은 高麗代 八角堂形浮屠인 瑩源寺址 舍利裝置^③等二, 三例에 불과 할 뿐이다. 이와같은 古式의 舍利奉安法이 그대로 계승되어 李朝로 推定되는 이 浮屠에 까지—비록 略化되어 石函은 없어지고 灰로 密封된채로 奉安되었지만—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灰(白土)로 密封된 銅盒속에 水晶鉢이 있고 그 안의 水晶製舍利瓶속에 舍利一粒이 奉安되어 있었으며 盒속에는 작은 비단이 남아 있어 鉢과 舍利瓶을 찻던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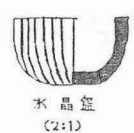
盒.. 上下가 넓은 銅小盒으로 아무런 紋樣도 없고 다만 一條의 陰刻線의 蓋口帶를 表示했을 뿐이며 곳곳에 靑·黑녹이 있다. 蓋上面과 身底面이 많은 파편으로 깨어졌는데 이것은 녹이 흘러 작은데 발견할 때 곡평이에 맞았기 때문이다. 表面 곳곳에 灰가 남아 있어 灰로 密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水晶鉢.. 蓋가 없는 투명한 水晶製 鉢으로 內部에는 아무런 紋樣도 없으나 表面胴體에 陰刻縱線을 細密하게 마련하고 있어 특징적인 것이다. 麗代의 靑瓷등에 縱線文樣을 表現한 例는 있으나 水晶으로 된 것은 희귀하다.

水晶小瓶.. 全體를 하나의 조그만 불투명수정으로 짜아 만든 것인데 蓋는 上部를 잘라 만들었으며 內部는 적은 구멍을 만들어 舍利를 安置하도록 하고 있다.

實測值

① 舍利盒.. 高五·一cm 口徑九·二cm 蓋高



水晶鉢 (2:1)



舍利盒 (50:1)



水晶舍利瓶 (1:1)

二・三 cm 蓋徑 九・六 cm

② 水晶鉢 高三・一五 cm 口徑 五・四 cm

③ 水晶瓶 高一・六 cm 胴徑 一・五 cm 口徑 一・五 cm 底徑 〇・八 cm 舍利孔深 一・一 cm 孔徑 〇・九 cm

④ 舍利 〇・二×〇・二五 cm

이 浮屠의 建立年代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銅盒이라던가 비단천 水晶鉢, 瓶은 李朝前期作일 것이며 石函을 마련하지 않은 舍利奉安方式이나 鍾形浮屠의 樣式 등에도 뚜렷한 시대의 下降을 보여주고 있어 李朝前期에 建立된 浮屠로 推定된다.

註

① 李朝實錄 世祖三年條

② 龍門寺重修記「朝鮮佛教通史 P・四四〇」

③ 尹容鎮·「靈源寺址와 出土遺物」(考古美術 四卷六號)

資料

槐山 江坪里 三層石塔

李 殷 昌

忠清北道 槐山郡 靑川面① 江坪里 「서부거리」라는 部落 西南쪽에 寺址가 있다. 寺址는 뒤(西北)에 壯嚴한 山峰이 峻拔하여 있고 앞(東南)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낮으막한 臺地를 이룬 발가운데에 三層石塔 一基와 石塔殘石②이 남아 있고 附近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있어 寺址로 推定된다.

石燈은 單層基壇위에 三層塔身이 重積되고 相輪 一部分이 남아 있다.

(1) 基壇은 地臺石위에 長大한 單基壇으로 造成되었는 바 四枚板石을 Ⅱ字形으로 짜인 中石이 놓이고 그 위에 一枚板石으로 된 甲石을 덮었다. 中石의 各面에 童子柱가 없이 省略되어 있음은 基壇經營에 疎忽한 感覺을 免치 못하는 것이나 甲石의 上表는 勾配와 屋身의 表出되어 있음은

재미있는 일이다. (2) 塔身은 總 三層으로 되었는데 一個石으로 된 屋身과 또 一個石으로 된 屋蓋를 交互로 쌓아 올렸다. 初層屋身石은 高가 높고 四隅柱가 彫刻되었으며 南正面에는 仰瓣蓮花座위에 結跏趺坐로 三面寶冠을 戴하고 正視像을 한 菩薩像을 浮刻하였음이 注目된다. 二層以上의 屋身은 漸次 短縮을 보이는데 그 數值的 短縮比例는 若干의 均衡을 잃은 듯 하며 各層 모두 四隅柱가 刻出되었었다. 屋蓋石은 各層 같은 樣式으로 檐下에는 三段級の 「屋蓋石받침」이 造出되고 이 「屋蓋石받침」 밖으로는 홈(溝)을 파서 浮椽을 두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屋蓋表面이 四隅降棟으로 區分하여 比較的 急한 勾配를 보이며 檐下는 四隅轉角에 이르러 反轉하니 仰曲線을 이루었다. 그리고 屋蓋頂上에는 各層 共히 「屋身의 口」이 마련 되었었다. (3) 相輪은 露盤·仰花·寶輪 一個 등이 殘存하는데 仰花는 거꾸로 놓였다.

本塔은 조그마한 石塔이나 (1) 初層屋身의 正面에 菩薩座像이 配置된 點 (2) 屋蓋의 美麗한 曲線 (3) 相輪의 精密한 處理等은 特異點으로 注目되는 바요 또 樣式手法은 高麗時代의 所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值

總高 約 三六五 cm

1、基壇部 ① 中石……高 八二 cm 幅 一一五 cm

② 甲石……高 一一二 cm 幅 一五三 cm (屋身의 口) 高三 cm 幅 九〇 cm

2、塔身部 初層 ① 屋身……高 六六 cm 幅 六七 cm

② 屋蓋……高 三五 cm 幅 一一三 cm

二層 ① 屋身……高 三〇 cm 幅 五一 cm

② 屋蓋……高 二七 cm 幅 九八 cm

三層 ① 屋身……高 二五 cm 幅 四四 cm

② 屋蓋……高 三〇 cm 幅 八〇 cm

3、相輪部 露盤……高一七 cm 幅 三〇 cm

仰花……高一五 cm 幅 二二 cm

寶輪……直徑 二三 cm 高一五 cm